

노인입원환자에서 항생제 사용양상에 관한 약물역학적 분석

박병주^{1,3}, 조용균², 정귀옥³, 구혜원³, 김대성¹, 배종면⁴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¹, 울산의대 내과²,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³, 제주대의대 예방의학교실⁴

항생제의 오·남용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보건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노인입원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실태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피보험자 혹은 피부양자로서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 입원환자 4,262명을 대상으로, 1993-94년간의 진단명과 약물처방내용 등을 포함하는 전산자료기지를 구축하여 항생제 처방양상을 분석하였다. 노인인구에서의 입원율은 '93년 100명당 8.3명, '94년 100명당 9.8명이었고, 입원은 주로 3차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졌다. 입원중 한 번이라도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54.3%였다. 감염성 질환의 이환률은 입원환자 1,000명당 168명이었는데, 소화기계 감염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호흡기계, 결핵, 바이러스 질환, 비뇨기계 질환 순이었다. 경구용 항생제는 penicillin계, quinolone계, 1세대 cephalosporin 순으로 처방되었고, 주사용 항생제는 aminoglycoside계, 1세대 cephalosporin, penicillin계 순으로 처방되었다. 2년동안에 경구용 항생제 처방 빈도는 penicillin계 항생제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었고 cephalosporin계 항생제는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는 주로 2세대 cephalosporin의 증가에 기인하였다. 주사용 항생제 처방의 상대빈도는 1세대 cephalosporin은 감소 추세에 있었고, 2,3세대 cephalosporin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3차 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기관에 비해 β -lactamase inhibitor계 항생제, 2,3세대 cephalosporin과 quinolone을 더 많이 처방하고 있었고, aminoglycoside계 항생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경구 항생제의 평균 일일복용량은 1세대 cephalosporin만 2차 의료기관에서 더 높았고, 주사제인 경우에는 모든 항생제를 3차 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기관보다 더 많은 용량으로 처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의료기관별 항생제 복용기간은 macrolide와 β -lactamase inhibitor계 항생제를 제외하고는 3차 의료기관에 비해 2차 의료기관에서 짧았다. 항생제 병용처방의 빈도는 56.2%이었고, aminoglycoside가 가장 많이 처방되었다. 항생제의 사용과 연관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항생제 내성의 발현이며, 그 외에 항생제로 인한 부작용, 이차적 중독감염의 유도, 그리고 의료비용의 상승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항생제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